

법화경의 원리에 의한 디자인의 이해

Comprehension of Design by Principle from the Stupa of the Lotus

박철우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정의철

경남대학교 디자인학부

Park, Chul-Woo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ungnam Univ.

Jung, Euy-Chul

Dept. of Design, Kungnam Univ.

- Key words: The stupa of Lotus, Design Principle

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법화경의 원리를 통해 Design의 의미를 재고찰해 보고 그 과정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이해의 접근은 삼제삼관, 일념삼천, 십계호구, 십여시, 삼세간, 일불승, 개삼현일이라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법화경과 디자인의 텍스트를 통해 변화원리로서의 공통성을 찾아보기자 하였고 둘째는 우주의 다섯가지 기본 요소인 오대를 통해 인간과 환경의 커뮤니케이션인 공성과 묘의 관계를 고찰하고 제품의 존재원리를 고찰해 보았으며, 셋째로 문화현상의 이해인 관법과 주요 카테고리인 일념삼천의 구성을 통해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성, 형상과 작용, 확대의 사회상인 트랜드로의 구조까지를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법화경의 이론과 디자인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하여 일불성의 원리와 디자인의 원리를 도표로 비교함으로서 서로의 관계가 있음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2. 본 224론

2-1. 법화경과 디자인의 이해

본래 디자인이란 말은 지시·표시한다는 리틴어에서 유래하고 있고, 일정한 사물을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원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어의 dessin과 어원을 같이하고¹⁾ 있고 분석을 하면 deforme(弗) deform(英)의 de(변형시키다) + sign(기호) = design(기호를 변형시키다)로 해석이 되어진다. 법화경은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으로 있는 그대로의 생명을 묘법연화경의 텍스트에 실어 그대로 전환해 간다는 일불승(一佛乘: 경예(境譽)의 배에 태운다) 사상이다. 간단하게는 (귀의하다+법화경)이 되지만 南無(空) 妙(즉) 法蓮華經(色)+ 南無妙法蓮華經로서 여기서의 즉의 묘는 반야의 공(諸法實相)을 활성화 시키는²⁾ design이 갖는 기호변형의 의미로 구성이 될 수 있다.

2-2. 환경과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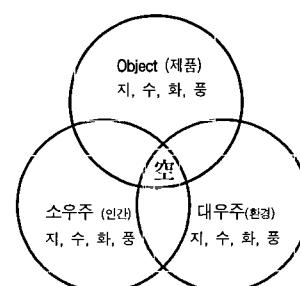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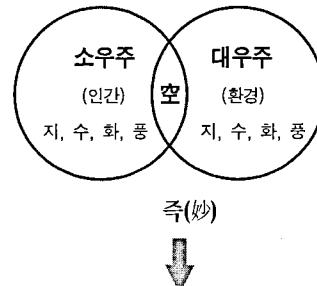
환경과 인간은 우주의 다섯가지 기본요소인 오대(五大: 지, 수, 화, 풍, 공)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광역적인 구성을 대우주, 지역적인 구성을 소우주로 본다.

대우주 ... 환경(흙, 물, 불, 바람, 허공)

소우주 ... 인간(골육, 혈액, 체온, 숨결, 생명)

여기서 대우주와 소우주의 오대의 핵은 임시假화합中인 공으로서, 空³⁾을 활성화 시켜내는 즉을 design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空의 활성으로서의 妙 / 헤겔의 정반합의 변증법)

제품 디자인의 예를 들면, 대우주의 공을 소우주인 인간이 그대로 오대의 영역을 사용해 제품(도구)으로 만들고 나름의 공을 묘로 갖추어 지니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空性=体, 妙性=心, 空妙=宇宙=諸法實相=生命) 여기서의 생명력이 곧 자성을 지니게 하는 묘(妙)의 用과도 의미함이 같다.

1) 삼제 · 삼관법(三제, 三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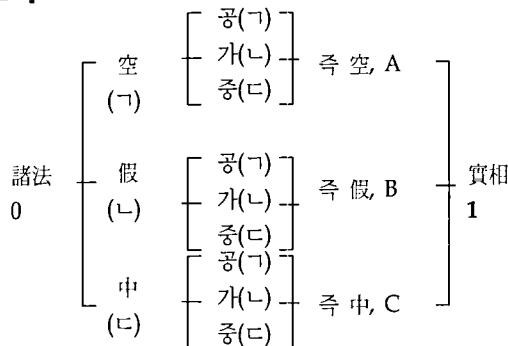
제법실상인 일체법을 空, 中, 假(과거, 현재, 미래)의 관법으로 관(觀)하는 것이다. 一例로 입체의 像인 화병을 空으로 보고, 화병이 비치는 거울속의 像을 假라고 본다. 그리고 이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을 中으로 보는 관법으로 각각을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동의 삼제로서 일정의 방향성이 없는 한덩어리의 구성을 보는 것이다. (Chaos, Fractal)

1) 프로덕트 디자인 연구, daizaburo okita 지음./ 박대순 옮김, 1995

2) 법화경 입문, 박혜경, 범우사, 1992

3) 自性이 없는 임시假화합의 中인 상태

표 2]

(日淳上人全集에서)⁴⁾

2) 일념삼천(一念三千)

일념(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에 삼천의 제법(십계호구+십여시+삼세간)이 구족하는 것. 일념이란, 순간 극미의 생명을 말하며, 삼천이란 현상세계의 일체(一體)를 말한다.

3) 십계호구(十界互具)

하나의 생명체·생명현상을 시간적인 흐름의 시점에서 해명한 것. 순간 순간의 시간의 흐름속에 나타나는 생명의 경지를 10 종으로 분별한 것으로.(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천, 성문, 연각, 보살, 불계)에 각각 또 열 가지 경계를 갖춤을 말한다.

4) 십여시(十如施)

모든 법의 실상(상,성,체,력,작,인,연,과,보,본말구경등)으로 本과 末의 기능과 작용이 같음.

5) 삼세간(三世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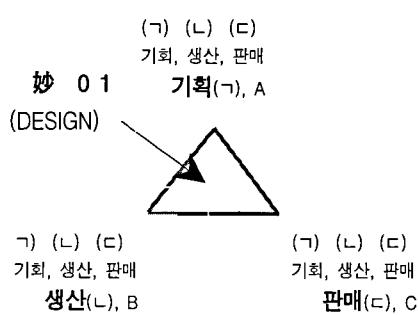
인연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사물이 흐름을 옮기는 것으로 차별간격이 있는 것. 즉 인연회합에 의해서 조작된 일체의 차별법을 3종으로 분류한 것(오음, 중생, 국토)을 말하며 일념작용들의 확대이다.

* 오음(色,受,想,行,識: 본, 만큼, 생각하고, 행하고, 되어진), 중생(衆生:그리한 무리), 국토(國土:그리한 무리가 만든 환경)

2-4 제품과 사회

1) DESIGN 활성화로서의 동시공학

표 3]



2) 일념삼천으로 요약되는 게슈탈트·프렉탈·제품유닛들의

기하학적 키워드 이해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

반복성(Recursiveness)

무작위성(Randomness)

불가능한 공간(뫼비우스띠, 트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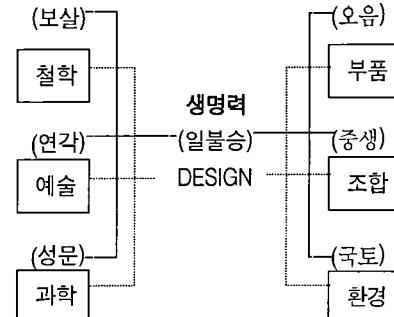
무한성(만다라)

평면과 입체구성(입자, 파동, 영역)

4) 개삼현일(開三現一)과 일념삼천(一念三千)과 디자인

개삼현일이란 ‘삼을 열어서 일을 나타낸다’는 통일원리로서 성문(선철의 가르침 등에 귀를 기울여 경애를 열려고 하는 사람)과 연각(외계사물을 연으로 해서 깨닫고 또, 직감적인 사고 방식으로 혼자서 경애를 열려고 하는 사람)과 보살(타인을 구제하는 것으로 경애를 열려고 하는 사람)을 일불승으로 연다.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목적은 삼승(三乘)의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 개성불도의 법인 일승묘법을 설하는데 있다. 법화경 방편품느의 제불은 방편력을 가지고 일불승(一佛乘)에 있어서 분별하고 三으로 설하셨도다.’⁵⁾

표 4]



(과거) ↔ (현재) ↔ (미래)

3. 결 론

모든 법의 일체실상이 생명이라면 그 활성의 힘인 생명력의 키워드가 바로 ‘DESIGN’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더욱더 생동감 있고 건강한 역동적인 문화에 에너지를 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는 곧 디자이너가 대우주와 하나가 되어 제2의 소우주를 창조해 낸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탄생을 위한 또 하나의 생명의지와 같음을 알 수 있었고, 결국 기하학의 구성원리로서의 요약이 바로 법화경의 이론과 일치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박혜경, 법화경 입문, 범우사, 1992.
- 다무라시로우 외 이영자, 천태법화사상, 민족사, 1994.
- 池田大作, 어의구전, 회광출판사, 1994
- 창가학회 교학부, 어서사전, 회광출판사, 1990
- 문 철,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 프랙탈 구조의 활용 가능성 연구, 2002

4) 池田大作, 어의구전下(一), 회광출판사, 1994

5) 창가학회 교학부, 어서사전 35p (開三現一), 1990